

## 스톡홀름 선언

“좋은 디자인은 가능하게 하며, 나쁜 디자인은 불가능하게 한다.”  
“Good design enables, bad design disables”

### 도입

1993 년도에 설립된 EIDD(European Institute for Design and Disability) –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럽(Design for all Europe)은 설립 이후 다음 선언을 채택하였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지난 10 년간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럽’은 국제 관계와 유럽내의 조직을 발전시켜서, 16 개국의 국가기관 회원, 기업회원, 개인회원이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또한 EIDD 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1950 년대 스칸디나비아의 기능주의와 1960 년대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근원적인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사회 정치적 배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1960 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접근성을 최우선시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l)’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이상적 개념은 1993 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에 대한 UN 표준 규정*’을 통하여 법제화 되었다. UN 표준 규정은 접근성을 평등성(equality) 맥락에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점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철학적 사고에 대한 영감을 주어, 마침내 1995 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EIDD 연례총회에서 이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 유사한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반면 영국에서는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동적 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IDD -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럽은 2004 년 5 월 9 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연례총회에서 다음 선언문을 채택한다.**

유럽은 사람들의 연령, 문화, 능력에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과 달리 우리는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장애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복잡해 지고 있지만, 사회 통합(inclusion)의 원칙을 중심으로 모두가 사용 가능한, 책임감 있는 디자인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 사회적 통합, 그리고 인간 평등을 위한 디자인이다.**

이와 같이 총체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은 설계자, 디자이너, 기업가, 행정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모두에게 창의적이며 윤리적인 방안을 요구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 참여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문화와 정보, 즉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하거나 만들어진 모든 것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실행은 사람들의 요구(needs)와 기대에 대한 분석과 디자인의 모든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end user)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EIDD –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럽은 유럽의 모든 기관, 국가 및 지역·지방 정부, 전문가, 기업인, 사회 활동가 등이 그들의 정책과 활동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 실행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